

# 신안군, 국내 첫 해상풍력 군민펀드 내년 5월 출시

###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 군민 우선 투자 20년 만기 연금형 2조 조성시 2조2천억 수익 공유

신안군이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와 함께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군민들의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지난 27일 (주)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와 주한 덴마크대사관 무역대표부 대표 요아킴 아를 피셔, TUV SUD korea 김지연 상무, 지역 금융기관장 등이 만나 해상풍력 군민 펀드와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 5월 우선 1000억 규모의 출시 예정으로 군민과 지역 금융기관, 주민 협동조합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인근 지역민들까지 확대하면서 글로벌 해상풍력 군민펀드의 메카로 자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신안해상풍력 전체를 완공하려면 약 6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선로가 지나가는 무안, 함평, 영광, 장성을 비롯한 향후 전남도민도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8일 국내 최초 신안 해상풍력 군민펀드 조성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만기는 20년으로 기본 PF 금리 최소 5.5%에 추가 금리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으로 내년 5월부터 2027년까지 3회로 분할 모집예정이다.

만기는 20년이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다.

신안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26개 발전단지에서 8.2GW를 조성계획으로 2030년까지 2조원의 펀드 조성시 20년간 약 2조2000억 원의 수익이 출자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역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들에게는 지역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펀드에 출자하면 높은 금리를 받아가는 즉, 저금리 대출과 고금리 펀드 수익의 차액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발전사 간의 안전한 협의체제도 만들어 어려운 군민들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같은 안전하고 높은 금리 소득 구조를 위해 신안군민펀드 입부협약, 조세 제정, 펀드구조 등 내년 5월 상품 출시까지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이리턴 하이리스크의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감시·감독으로 투자 상환금은 NH농협은행에서 관리하고 거래 정보는 금융결제원이 기록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신안주민들은 햇빛연금과 바랍연금, 군 펀드 수익금 등으로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돼 인구증가에도 기대가 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차 100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지역 금융기관이 협의해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고 우선 신안군민 모두가 출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상풍력 군민펀드로 필요롭고 행복한 신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7000여 농가에 93억원 지급

완도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93억원을 12월2일부터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4721 농가에 61억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 농가에 32억원이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급 단가가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량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생산의 농정 전환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현장조사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사랑자나 농외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등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조치했다.

관외 경작자나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경자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등록 취소나 환수 처분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과,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사에 큰 힘을 다해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익직불금이 농가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관상

### 대파 버거 '로코노미 모범사례'

진도군은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경제 분야 우수사례 부문에서 전국 1위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주민 삶의 질,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139개 지자체에서 359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돼 분야별 우수 1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진도군은 2023년 맥도날드와 협업해 진도 대파를 활용한 버거를 처음 출시, 진도 대파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등 기업과 생산자가 상생하는 로코노미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 받았다.

진도군은 진도 대파 버거의 출시로 2023년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 대파는 해풍을 맞고 자라 향이 깊고 미네랄이 풍부하다"며 "이러한 진도 대파의 우수성이 이번 수상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김희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전남도 관리계획 변경 승인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첨단농업복합단지는 총 4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안스포츠파크 옆 현경면 양학리 일원에 21만여㎡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과학영농 기반시설, 신기술 실증시험포 등의 첨단 농업시설이 집적화된다.

무안군은 지난 2023년 11월 전라남도에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데 이어 관계부서,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

이번 승인으로 사업부지 중 7만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진행되고, 전체 사업부지는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로 계획돼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업 대상 부지의 약 98%에 달하는 농림지역은 무안군의 끈질긴 노력과 서삼석 국회의원의 설득이 더해져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동의를 받았다. 군은 주민 공람·공고, 고시 절차와 설계 등 각종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2027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국가철도망계획 반영돼야"

### TF구성, 국토부에 건의서 제출

### 18일 국회서 반영 촉구 토론회

해남군이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동부 서주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 노선 연결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TF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사업

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해남군과 완도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토론회'를 국회에서 갖는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가 소요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각종 기상이변으로 매년 1500여건의 결항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대안 노선으로 2000년대 초 반부터 제기돼 왔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영암군, 완도군과 함께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목포에서 영암, 해남, 완도를 잇는 지상 철도 구간과 완도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이뤄진다.

3개군은 막대한 사업비와 제주도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1단계로 영암과 해남, 완도로 이어지는 육지 구간을 먼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호남고속선(서울-목포)과 남해선(임성-보성)을 연결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무안공항을 거쳐 계곡면에 위치한 땅끝해남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 중이다.

호남고속선과 남해선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해남에서도 환승없이 무안국제공항과 서울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며 남해안권 접근성 향상으로 신규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대국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남지역 고속철도 연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